

백영호 한국환경정책연구소 소장

이제 12월이 지나면 새해, 새천년, 새천년의 동이 뜬다. 새천
년 새천년에 동양지구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꿈의 실현은 저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꿈을 위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만 현실로
변환 있다.

세계는 1960년대 말 <생장의 한계>가 발표된 이래 크고 작은
국제회의를 빈번하게 개최해왔지만 다양한 국제행약들이
반드시 실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기 일쑤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7년 6월 <유엔리제리>의 5년간의 진척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략을 다루는 유엔환경총회(UNEP)가 개최되어 있다. 이
총회의 결과에 의하면 40장으로 되어 있는 의제중에서 가중 부진
해지고 있는 제4장의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의 변화였다. 지구
환경문제의 가장 원천적이며 핵심적 제기 수행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고도 지구환경의 개선을 기대해왔다면 망망 앞이 밝아 있다.

새천년에 동양지구를 꿈꾸고 있는 것은 비록 생산양식과 소비
양식의 변화의 원천에서 비롯된다. 그 실현은 누구에게도 전지적이며
당장 작동할 해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내기잡 해나잡은
내나잡은 때 이잡은 행동 해나잡은 행동의 방향은 분명하다. 동양지구를
기대하리니 이런 생산양식과 소비 양식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생산양식은 무엇보다도 추후의 원천을 지원을 낭비하고 오염물질
을 배출하면서 지내며 많은 물질을 만듦으로써 소비비율의 부족
생산양식을 바꾸어야 한다. 소비양식은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환경친화적인 삶을 선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양식을
개선하는 데 있다.

소매는 친환경상품을 선택해서 구매하며 꼭 필요한 것,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것, 폐기물이 생기지 않게 가능한 것, 오염원이 없는 것 등을 고려
해야 한다. 지구의 일상행동의 환경 점검을 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쓰레기减量, 자원 재활용, 적정량의 음식사용 등의 소비양식을 하는
동양생태학을 해야 한다. 소비양식은 개인행동이 아닌 기업과 정부로
확장된다.

정부는 생산과 소비양식과 소비자의 동양생태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여 전이대응기구의 집행 그리고 관리감독을 강력히 해야 한다.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으로 바뀌어 양고 소비자는 물론이고 사회 양자 생산양식
중간해야 하는 것은 현실이 엄격해서 상황에서 시장원리에만 내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다면 <동양생태경제위원회>를 설립
하는 한편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인증제도를
정한다. 이러한 것들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고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고
환경에도 이익이 된다.

동양생태학을

정부가 주도하여
하는 것

